자세히 보기

경기동부 출신들이 유난히 돈에 집착하는 이유?

무운
2020-09-19 07:58:18

80~90년대 학번 경기동부 출신들은 졸업후 취업을 하지 않고 성남,용인,신갈 등지에서 청년회등 시민사회 활동을 하며 단체생활을 이어갔고,신문배달과 우유배달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니 항상 돈에 궁할수 밖에 없었다 프로레타리아 혁명 한다면서 돈에 초연한척 했으나 속마음은 돈에 대한 욕구를 억누를수가 없어서 어떤 계기만 되면 돈을 모으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돈을 일부는 조직에 바쳐 혁명자금으로 썼다 그래서 이석기라는 괴물이 나오게 된것이고 혁명을 위한다는 핑계 아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 되는 사회주의 혁명이론에 비추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것이다 윤미향등이 해먹은 수많은 돈은 분명 일부는 조직으로 흘러들서가 혁명자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윤미향등이 저리 당당할수 있는 것이다 조직과 혁명을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정당화 되는것이 주사파사회주의의 이론이기 때문이다
경기동부와 관련된 정치인들을 조사해 보면 엄청날 것이다
경기동부는 1995년 군자산에 맺은 사회주의혁명의 약속을 아직도 지켜나가고 있을 것이다 2.3.40대의 청년들은4,5,6,70대의 중장년이 되어서도 지켜나가고 있을 것이다 영원히 그릇된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전두환 보다 더 괴물이 되어 버린 용인성남신갈 지역의 주사파 늙은이가 되어 버렸다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런 선봉장 투쟁의 불사조 용성총련(경기동부총련)은 사라지고 망해버린 주사파의 망령만 남아 영원히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다

댓글 1개 나의 댓글보기 >

건전한 댓글문화를 만들어주세요 등록

유기농인간

웃긴 건 이재명은 저 루트를 타지도 않았는데 거지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 거지들이 자존심도 없어 ㅎㅎ

20-09-19

답글 0 8 0

25 1 1 맨위로